

## ■ 2026년 공연예술창작주체(공연비평)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공연예술창작주체(공연비평)
-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 2025년 12월 8일(월) 14:00~18:00
  - (2차 인터뷰심의) 2025년 12월 15일(월) 10:0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메이플레이스 호텔 컨퍼런스룸 1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광보, 김일송, 권성택, 노승림, 송현민, 이근수, 이태상, 최원선

공연예술 창작주체 공연비평 사업은 공연예술 비평 분야 민간예술단체의 중장기 지원을 통한 공연예술계 비평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의 사업으로, 최소 5년 이상 비평지를 발간하였거나 비평 행사 운영실적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전통예술 제외)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비평 전문매체 지원과 비평 관련 학술행사 지원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비평 전문매체는 최대 4천 8백만 원, 비평 학술행사는 최대 1천만 원으로 지원 규모에도 차등을 주었습니다.

2026년도 공연예술 창작주체 공연비평 사업에는 비평 전문매체 지원에 14개 단체, 비평 관련 학술행사 지원에 4개 단체가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5개 단체, 비수도권에서 3개 단체가 지원하였고, 장르별로는 연극·뮤지컬이 3건, 무용 6건, 음악 3건, 전통 1건, 그리고 문화일반 5건이 지원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전담심의위원 중 장르별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의는 1차 서류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로 진행되었고, 1차 서류 심의 결과 14개 단체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차 서류심의 시 심의위원들은 신청 주체의 사업 수행역량과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사업계획의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 또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인터뷰에서는 단체의 사업수행에 대한 의지와 계획 등 서류만으로는 확인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수행역량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는 수년 동안 비평지를 발행해오거나 학술 행사를 운영해온 단체가 다수를 차지해 큰 결격사유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몇몇 운영진에 의해 구성된 단체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심의는 이러한 단체의 역량보다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주목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의 분명성과 계획의 구체성 등의 기준에는 대체로 부합하였습니다. 몇몇 구체성이 부족한 단체가 있었지만, 그보다는 '공연비평'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단순한 정보전달보다는 비평지로서의 담론형성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반대로 정책적이거나 학술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도 있었는데, 이 또한 본 사업이 '연구지원' 취지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관성적으로 진행되는가 아닌가 또한 주목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수행인력의 전문성 또한 논의의 대상이었는데, 참여 인력은 대체로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필진 개발에 대한 노력 없이 기성세대 평론가들로만 참여 인력을 구성한 단체가 많았던 점은 아쉽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의 공공성과도 연동되는데, '신진 인력 발굴 노력'과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진행하던 사업 이상의 계획을 보이지 못한 단체가 많았습니다. 신진 인력을 발굴해, 참여 인력으로 품으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보인 단체가 많지 않았던 점도 아쉬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사례비 편성 비율(운영인력을 제외하고 참여 인력의 원고료 및 사례비)이 적절한지 확인했습니다. 높은 경우 총사업비의 66%를 사례비로 책정한 단체도 보였으며, 반대로 총사업비의 4%를 사례비로 책정한 단체도 보였는데, 사례비 편성 비율이 낮다는 것은 사업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비중이 높다는 의미로, 그만큼 참여 인력에 대한 보상이 적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예산과 관련해 또한 중요한 기준은 '공정보상에 대한 실행의지'로 '원고료 산정 방식'이 적절한가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이긴 하나 '정당 보상' 측면에서 원고료 가이드 평균 지급단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준을 채우지 못한 단체가 상당수였습니다. 일례로 2025년의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는 10,183원인데, 이를 평균이 아닌 최저 단가라고 생각해 사례비를 책정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이 연구지원 사업이 아닌, 비평문화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독자층 확대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콘텐츠의 온라인 확산이나 다양한 플랫폼의 활용, 무엇보다 새로운 독자, 참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비평 담론을 확산하기 위한 기획이 있는지 또한 기준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심의과정을 통해 심의위원들은 마지막까지 선정단체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총 12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연극·뮤지컬과 무용 분야에서 각 1개 단체를 다년 지원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학술행사 단체는 신청한 지원금을 100% 보전받았지만, 비평 전문매체 지원 단체는 대부분 50% 정도 삭감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비평 전문매체 지원 단체 대부분이 4천 8백만 원의 최대 지원액을 신청한 결과이며, 합리적으로 신청한 단체엔 상대적으로 보전율을 높게 배정했습니다.

모쪼록 선정단체들은 공연예술 비평문화 확산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고료 권고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